

與, 이낙연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불수용... 이재명 승리 확정

당 선관위·최고위 유효표 산출방식 유권해석, 박수로 추진

“만장일치냐 따질 문제 아냐...洛측 견해 다르지만 따랐다”

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무위원회 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요구한 '무효표 산출 방식' 이의제기를 기각했다.

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10분까지 1시간40분 가량 당무 위원 76명 가운데 64명(서면 15명 포함)이 참석한 가운데 당무위를 열고 중도 사퇴 후보 득표수를 '무효표' 로 처리해 유효 투표수 계산에 불포 함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 회의 결정을 박수로 추진했다.

경기지사도 당무위원 중 한명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당무위에 불 참했다. 그는 당무위에 서면으로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전했다.

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

당무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 의 결로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 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당무위 표결방 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, 인사 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.

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“결론을 냈다. 민주당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해당 당 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진했다”며 “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을 의결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는 “당무위에서 기존 해석을 추 인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 (승리)한 것으로 인정하고 끝났다” 며 “향후에도 차기 대통령 경선을 해 야 한다.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나

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문을 최 정하겠다”고 부연했다.

고 수석대변인은 ‘표결 했느냐, 만 장일치냐’는 질문에 “보통 의결한다 고 하면 상임위원 모든 회의에서 특 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나 위원 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한다. 그런 방식으로 했 다”고 답했다.

그는 “마지막에 박수 소리가 났는 데 박수로 추진했느냐에 질의에 “박 수로 추진하는 형태로 만장일치냐 아니냐 따질 문제는 아니다”며 “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 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고 결정하자는 취지 하에서 의결했다”고 했다.

고 수석대변인은 반대 여부에 대

해 “월 의결 주문에 수정을 가해서 향후 개정까지 다같이 의견을 모았 다.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만 장일치냐. 그건 결은 다르지만 (당무 위원들이) 다 의견을 모아줬다”고 강 조했다.

그는 이낙연 캠프 의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에는 “이낙연 캠프 의원들 은 그간 제기했던 기반하에서 당위 성을 강하게 얘기했다”며 “그러나 그 령지 않게 해석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 사이에 선관위와 최고위가 고심 끝에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을 추 인하는 것으로 했다”고 답했다.

고 수석대변인은 ‘일부 반대 의견 도 있었다’는 지적에 “논란이 있었지 만 그럼에도 결론을 내야해서 원 의 결 주문에 수정을 가해서 향후 개정 하는 것까지 다같이 의견을 모았다” 며 “반대하는 사람 없었던 만장일치 였냐, 그건 결은 다르지만 다 의견을 모아줬다”고 했다.

그는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“똑같 다. 발언 기회는 찬반이 거의 비슷하 게 했기 때문에 어다가 우세하고 슷



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”고 했다. 의결 직전 당무위원 14명 정도가 발 언에 나섰다”고도 부연했다.

고 수석대변인은 ‘이 전 대표 측은 승복 입장이나’는 질문에 “합의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”고 강조했다. 그 는 “자기 견해는 비록 다르지만 따라 주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”며 “우 리의 단합과 미래와 대선 승리를 위

해서 지금까지 지도부 결정을 추진 했다고 보면 된다”고 부연했다.

그는 ‘이 전 대표 지지자 일부가 거 처분 소송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봉 합할 것이냐’는 질문에 “그 논의는 안했다. 그런 (문제) 제기도 없었다” 며 “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”고 말했다.

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

이낙연 “대선 경선 결과 수용...이재명 후보 축하”



지지자 향해 메시지... “서로 존중해달라”

이 전 대표는 “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. 이 후보께 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 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”며 “선의 로 경쟁하신 추미애·박용진·정세균· 김두관·이광재·최문순·양승조 동지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”고 적었다.

그는 “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 겠다.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 하고,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 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”고 했다.

이 전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 “서로 를 배려하고 존중해 달라. 동지 그 누 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 는 안 된다. 그래서 승리할 수 없다. 저는 그 점을 몹시 걱정한다”고 당부 했다.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 간

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 된다.

그는 “지금 민주당의 위기가. 위 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,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 사”라며 “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 를 받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”고 거듭 밝혔다.

이 전 대표는 “여러분의 낙심이 희 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”며 “민주당이 더 혁신하고, 더 진화 하고,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 지는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 을 모으겠다”고 약속했다.

그러면서 “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. 반드시 4기 민주당부를 이루자.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”고 덧붙였다.

오유나기자

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 일 “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”는 입 장을 밝혔다. 지난 10일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승복 선언 이다.

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‘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’이라는 제목의 입 장문을 내고 “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 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 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 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현재의 장기 심리 지연, 국민의 기본권 ‘묵살’

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장기미제 사건은 1,303건

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(순천 광양곡성구례갑·법사위)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받은 <2021. 8. 31.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>·자료에 따르면, 2021. 8. 31.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 건은 1,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.

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 일 경과·1년 이내가 336건, 1년 경 과·2년 이내가 260건, 5년을 경과한 초 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.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,483 일에 이른다.

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

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
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처리 지 연과 관련하여 최근 별세한 긴급조 치 피해자 오종상씨(이하 고인)에 대해 “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랐다 면 억울함을 풀고 가셨을 것이다. 현재의 지연된 심리·장기미제는 국 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사법유기”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.

긴급조치·1호 피해자인 고인 은 2010년 1월 재심 결정으로 무 죄를 선고받은 후,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. 그리

나 2016년 5월 대법원은 고인이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민주화 보상법)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의 효 력이 발생한다며 고인의 소를 각하 했다. 이후 고인은 2016년 6월 10 일 헌법재판소에 민주화보상법 제 18조 제12항에 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, 2년 2개월여가 지 난 2018년 8월 30일에야 위헌결정 이 났다. 고인은 다시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였고, 그로부터 3년이 지 난 2021년 9월 30일에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. 그러나 고인은 선고일로부터 불 과 4일이 지난 2021년 10월 4일 에 별세했다.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

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
(062)
222-2580

광고문의
(062)
228-2580

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

전국 꽃배달 서비스

60,000

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직통전화 010-2400-7774
주문팩스 062-946-0053